

# 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와 언론사 뉴스 신뢰 정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기간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Effect of Television Audiences' Age and News Credibility on their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focusing on the period of the President Park Guen Hye's Political Scandal

우형진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Hyung Jin Woo(hyungjinw@hanyang.ac.kr)

## 요약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기간에 청소년 206명, 대학생 518명, 장년층 302명, 총 1,026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시청자 연령대와 국내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대해 측정하고 두 독립변수가 이들의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연령대별로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이 가장 높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청소년, 장년층 집단이 나타났다. 둘째, 텔레비전 시청자의 국내 언론사 신뢰 정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KBS 뉴스와 M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SBS 뉴스와 JTBC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연령대 | 신뢰도 | 정치 관여도 | 저항적 행위의도 |

##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ship between television viewers' ages and Korean broadcasting companies' credibility and viewers'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based on total 1,026 participants(206 adolescents, 518 college students, and 302 adults) during President Park, Guen Hye's political scandal.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ges on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College students shows the higher scores of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followed by adolescents and adults. Secondly, the higher score of credibility on KBS and MBC news, the lower scores of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the higher scores of credibility on SBS and JTBC news, the higher score of political involvement and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 keyword : | Ages | Credibility | Political Involvement | Resistant Behavioral Intention |

\* 이 논문은 2018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8-G)

접수일자 : 2019년 03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6월 12일

수정일자 : 2019년 05월 24일

교신저자 : 우형진, e-mail : hyungjinw@hanyang.ac.kr

## I. 문제제기

2016년 가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한국 정치의 부패와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 대통령 관련 엽기적인 소문과 유언비어, 국민의 분노와 탄핵국면 등 대하드라마에나 나올만한 드라마틱한 정치사건이 난무했다.

대통령 관련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과 정보가 난무하고, SNS상에서 “카더라”통신이 포효하고 있을 때, 정작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언론은 무기력한 상태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다. 신문은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진영논리로 양분되어 있고, 공영방송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파업 중이었으며, 수많은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들은 가십거리와 선정적인 정치논평으로 일관된 상황이었다.

국민은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 의지하여 해당 이슈의 불확실성을 극복한다. 특히, 정치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정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등을 신뢰하며 해당 정치 이슈를 해석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고 평가받지 못할 경우, 언론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서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여파로 국민들이 직접 광장으로 나가 촛불집회를 하며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과 정부에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의미를 둘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구성이다. 대학생 집회를 제외하고 과거의 집회나 시위는 주도자와 집회 참여자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구호를 외치고, 유사한 연령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명백한 목적없이 시위를 하기 보다는 노조나 시민단체들처럼 노동쟁의의 일환이거나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적 발언을 표현하고 참여자들도 대부분 장년층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농단 기간의 촛불집회는 여러 연령층이 참여했다 특히, “국정농단 초

반, 광주 전남여고 운동장에 누군가 큼지막하게 쓴 ‘박근혜 하야하라’는 글자, 전국 최초로 청소년 시국선언을 발표한 중등고등학교 110기 학생들, 박 전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성심여고 학생들이 학교 선배에게 전하는 글을 쓴 대자보 사진도 실렸다. 학생의 날인 11월 3일 경기도 풍생고, 서울 가락고에선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1].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는 4.19 이후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미성년 연령층의 관심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둘째,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수준이다. 비교적 신문보다 정파적 속성이 낮고, 방송의 공정성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방송의 경우, 언론사 뉴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았고, 특정 방송사의 경우, 촛불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심지어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격양된 상황까지 간 적도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서 연령층(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에 따른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텔레비전 시청자의 언론사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1. 정치 혐오, 미디어 부정주의, 그리고 젊은 세대

정치 혐오, 정치 냉소주의, 정치적 불신 등 정치를 비판적으로 보고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담은 용어들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며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2].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정적인 정치 인식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가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비디오 부정주의 이론(video malaise theory)이 가장 주목받아왔다[3]. 즉, 텔레비전을 통해 정치관련 이슈를 접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 혐오, 부정적 입장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후속연구들도 텔레비전을 비롯한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정치 정보 노출은 냉소주의와 무기력감을 높이고,

투표 기피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4][5].

반면에 정치와 미디어 부정주의 관련 일부의 연구들은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부재하거나 낮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6]. 많은 설문조사에서 뉴스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생산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의 민주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7].

이처럼 정치 혐오와 미디어 부정주의 간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여전히 연구결과에 대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치혐오와 미디어 부정주의 간의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미디어 환경이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발전했으며, 연구의 설계, 지수(index), 개념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정치 냉소주의와 불신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부정적 정치 프레임, 일상과 거리가 먼 이념 논쟁, 당리당락에 빠진 정치인과 정치 부패는 청년들에게 정치는 곧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었다[8]. 반대로 이런 정치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치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들과 유리된 삶 속에서 무관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를 단순히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행동하려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년층의 전유물이자 청소년과 청년들은 들어와서는 안되는 특별한 지대로 인식되어 있었다.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문제점이 폭로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위기 국면에서 청소년과 청년은 어떤 관심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했는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세대가 정치에 대해 혐오, 불신, 냉소로 점철되어 있어서 무관심하다고 보았던 편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연령이 정당지지, 투표, 정치효능감, 정치지식, 정치심리, 정치참여, 정치뉴스 이용 등 개인의 다양한 정치 기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9][10]. 물론, 교육수준, 경제수준, 거주 지역, ICT 지식 등이 매개 변인으로서 연령과 정치 기

제들 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미치는 정치적 관여와 정치 기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다만, 상황에 따라 연령이 개인의 정치 기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장년층은 TV 정치뉴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젊은층은 인터넷 정치뉴스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정치 행위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제도적인 방식의 정치참여는 낮지만 시위와 보이콧 같은 비제도적이고, 대안적인 정치 행위에 더 높은 관심과 동참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3].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은 언론에 의한 대통령의 부정과 부패 폭로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다이나믹 코리아를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의 혁명이었다. 사실, 계엄이 공포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권이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들이 중구난방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 각 연령층(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은 본 사안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행동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언론사 뉴스 신뢰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송신자의 신뢰도는 향후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설득(persuasion)의 과정에서 송신자의 신뢰도는 메시지의 수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는 공공문제를 공론장에 전달하고, 해석하며, 향후 지향점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유해야 한다. 초기 연구에서 뉴스 신뢰도는 송신자의 전문성(expertness)과 진실성(trustworthiness)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후속연구들은 뉴스의 신뢰도를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시의성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측정하였다[14].

일상의 기록인 뉴스는 공공성을 갖는 기록물이지만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뉴스로부터 전달된 메시지가 자신의 태도나 의사와 유사할 경우, 해당 뉴스에 대해 신뢰하고 선호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뉴스는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적대적 미디어 인식을 갖게 된다[15].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에 뉴스는 어느 수준의 신뢰성을 갖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는 자신의 논조에 따라 프레임을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여 시청자들의 인식 프레임을 조성한다. 각기 다른 언론사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어떻게 리포트했는지는 해당 뉴스를 텍스트 분석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각 방송사 뉴스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이 해당 방송사 뉴스를 편파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뉴스로 보았는지는 방송사 뉴스 신뢰성과 시청자 관여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3.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동의도

관여(involverment)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심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그 대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대상과 자신이 얼마나 관계가 깊다고 보는지, 또는 그 대상의 변화에 자신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그 대상을 알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지 등,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 관여도란 일반적으로 정치 전반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정치 상황에 대한 중요성, 연관성, 반응성, 정보추구성 등이 어떤 수준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정치 관여도는 정치 태도, 설득 메시지, 정치 광고 등과 연관을 맺으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 개인의 정치 관심은 미디어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선거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높다[12]. 정치 정보는 곧바로 공공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언론이 뉴스에서 정치를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은 정치에 대한 긍정/부정 인식을 갖게 된다. 정치와 공적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뉴스를 통한 정치 학습은 정치적 지식뿐만 아니라 정치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16].

정치적 격변기에 일반 사람들은 언론에 집중할 수밖

에 없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자신의 삶과 직결되고 정치적 변화는 사회 전체의 변화에 매우 의미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치 뉴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해당 정치 사안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자신이 속한 사회에 어떤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지 여부, 향후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미칠 파장 등을 면밀히 예측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언론의 정치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변화나 권력의 변동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격변기에 권력자의 권력 추구와 국민의 변화 추구가 상충할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권력자에게 정당한 민주적 제도를 요구한 것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권을 발휘하여 국민은 권력자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성명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집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상황에 따라 쉽게 표출되기 어렵다.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과 행동을 밝히기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의하면 개인은 미래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이성 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행동을 하기에 앞서, 해당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자신에게 중요한 준거집단이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살피는 주관적 규범(subject norm),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해당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인지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여부에 따라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17].

권력자가 존재하고, 정부의 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권력자와 정부에 반하는 표현의 자유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태도, 주변 사람들의 동조,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념이 높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에 수백만 명이 여러 날 동안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열고,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 하야에서부터 탄핵 요청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나왔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도 자유롭게 공론화되었다.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행동으로 변화하고, 각 행동들이 뉴스나 정보 통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제설정의 역할을 하면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향후 행동에 대해 결심해야 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며, 또 다른 사람들은 직접 집회에 참여하여 구호를 외치기도 했을 것이다. 또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연령층과 언론사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저항적 행위의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은 각기 삶에 대해 다른 입장과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언론사 뉴스에 대해서도 다른 신뢰 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연령층과 언론사 뉴스 신뢰도에 따른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살피으로써 텔레비전 정치 뉴스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정치적 격변기에 어떤 관심과 행동을 유발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와 국내 언론사(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 뉴스 신뢰도를 측정하고, 이들 두 독립변인이 박근혜 국정농단 기간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 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에 따라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국내 언론사(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 뉴스 신뢰도는 텔레비전 시청자의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가?

#### 2. 자료수집 및 설문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가족(동생과 부모 두 분 중 1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30부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1,026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8일 간 진행되었다. 참고로 법원은 2016년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의 경우, 청와대 900m까지 접근을 허가했고, 19일 4차 집회의 경우, 청와대 400m까지 허용했으며, 26일 5차 집회는 청와대 200m까지 접근을 허가했다. 본 설문기간은 촛불집회가 가장 뜨거웠던 기간이었으며,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표 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66	45.4%
	여성	560	54.6%
연령대구분	청소년	206	20.1%
	대학생	518	50.5%
	장년층	302	29.4%
합계		1,026	100%

설문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466명(45.49%), 여성 560명(54.6%)이며 연령대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206명(20.1%), 대학생 518명(50.5%), 부모 중 1명인 장년층 302명(29.4%)으로 나타났다.

#### 3. 주요변인의 측정

표 2. 주요변인의 설문항목 및 통계값

주요변인	측정문항	합산 평균값(M)	아이겐값 (크롬바흐 α)
언론사 뉴스 신뢰도	ooo 뉴스는 공정하다.	방송사 별 2.50~3.80	방송사 별 아이겐값 3.13~3.58 (.90~.95)
	ooo 뉴스는 정확하다.		
	ooo 뉴스는 객관적이다.		
	ooo 뉴스는 심층적이다.		
정치 관여도	대통령 연설문 및 국가기밀 서류 유출 사건을 알아보려고 관련 뉴스를 자주 보았다.	3.74	아이겐값 3.74 (.86)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 관련 뉴스를 자주 찾아보았다.		
	정유라씨 이화여대 학사 관련 뉴스를 자주 찾아보았다.		
	광화문 촛불집회 관련 뉴스를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애썼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뉴스를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애썼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사건에 대한 여/야당의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알아보려고 애썼다.			
저항적 행위이도	나는 국내 정치발전을 위해 촛불집회에 참석할 것이다.	4.03	아이겐값 2.06 (.77)
	나는 국내 정치발전을 위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여러 모임에 동참할 것이다.		

독립변인은 연령대(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와 언론사(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 뉴스 신뢰도로 정했다. 종속변인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이도로서 정치 관여도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과 6가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검색 노력으로 조작적 정의하였고, 저항적 행위이도는 국내 정치 변화를 위해 촛불집회 참석, 성명서 서명, 탄핵을 위한 모임 동참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해당 설문문항을 만들기 위해 신문방송학 전공 대학원생 6명에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선택하게 했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위 3가지씩 선정했다. 총 8가지 사안과 5가지 행위가 나왔고, 2회의 포커스 그룹 방법을 통해 6개의 중요한 사안과 3가지 저항적 행위이도를 선정하였다. 모든 질문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정치 관여도는 6가지 질문 문항의 합산평균값으로 M=3.74, 아이겐값 3.74, 크롬바흐 α= .86이며, 저항적 행위이도는 3가지 질문 문항의 합산평균값이 M=4.03, 아이겐값 2.06, 크롬바흐 α= .77로 나타났다.

첫 번째 독립변인인 연령대는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

인 학생으로 제한했으며, 장년층은 청소년과 대학생 자녀를 둔 양 부모 중 한 명으로 한정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독립변인은 국내 언론사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를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 심층성으로 구분하고 해당 4가지 질문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언론사의 뉴스 신뢰도를 묻는 4가지 질문 문항들은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단일차원(아이겐값 3.13~3.58, 크롬바흐 α = .90~.95)으로 묶였고, 뉴스 신뢰도는 각 설문항목의 합산평균값(M=2.50~3.80)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 중 언론사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채널은 JTBC(M=3.80)로 나타났다.

표 3. 시청자의 뉴스 신뢰도 평균값 및 크롬바흐 α

언론사	뉴스 신뢰도	
	평균값	크롬바흐 α
KBS	2.58	.93
MBC	2.50	.95
SBS	2.76	.94
TV조선	2.59	.93
JTBC	3.80	.90
채널A	2.72	.95
MBN	2.75	.95
YTN	3.12	.93
연합뉴스	2.96	.95

## VI. 연구결과

연구문제 1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세 집단(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에 따른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의 차이를 보았고, 연구문제2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각 언론사 뉴스의 신뢰성이 텔레비전 시청자의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의 경우, 공차한계와 다중공선성(VIF)검증 결과,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 1. 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에 따른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의 차이

연구문제 1은 텔레비전 시청자의 연령대(청소년, 대학생, 장년층)에 따라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표 4), 첫째, 박근혜 국정농단 기간 대학생(M=3.79), 장년층(M=3.72), 청소년(M=3.62)들이 정치 관여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F=2.71, p < .05$ ). 전반적으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뒤를 이어 장년층, 청소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보였다. 세 집단 모두 3점대 후반을 평균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차이는 유의미하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다수가 본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에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반대적 표현을 행동으로 보이려한 저항적 행위의도에 대하여 각 연령층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F=10.04, p < .001$ ). 대학생(M=4.11)들이 가장 저항적인 행위의도를 나타냈고, 뒤를 이어 청소년(M=4.08), 장년층(M=3.86)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치 관여도와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모든 연령대가 3.5이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대부분의 연령층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저항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촛불집회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다.

표 4.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의도에 대한 연령대 차이

		종속변인	
		정치 관여도	저항적 행위의도
독립 변인	청소년	3.62 (.96)a	4.08 (.82)a
	대학생	3.79 (.80)b	4.11 (.74)a
	장년층	3.72 (.88)c	3.86 (.77)b

주) 셀 안의 숫자는 평균값, 괄호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주) a, b, c는 사후검증(Tukey)을 통한 차이를 의미함

### 2. 언론사 뉴스 신뢰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인식하는 언론사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표 5), 첫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이들의 정치 관여도에 대해 방송사별로 다른 영향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 중 KBS 뉴스 신뢰도( $\beta=-.20$ )와 MBC 뉴스 신뢰도( $\beta=-.12$ )는 정치 관여도에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고, SBS 뉴스 신뢰도( $\beta=.09$ )와 JTBC 뉴스 신뢰도( $\beta=.21$ )는 정치 관여도에 대해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나머지 언론사의 신뢰도는 정치 관여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공영방송 KBS 뉴스와 MBC 뉴스를 신뢰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관심이 낮았지만, SBS 뉴스와 JTBC 뉴스를 신뢰한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이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JTBC 뉴스를 신뢰한 시청자들의 정치 관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종편방송,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신뢰도는 이들의 저항적 행위의도에 대해 방송사별로 다른 영향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 중 KBS 뉴스 신뢰도( $\beta=-.14$ )와 MBC 뉴스 신뢰도( $\beta=-.15$ )는 저항적 행위의도에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고, SBS 뉴스 신뢰도( $\beta=.09$ )와 JTBC 뉴스 신뢰도( $\beta=.30$ )는 저항적 행위

1 공차한계가 .01보다 크고, VIF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에 대해 정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나머지 언론사의 신뢰도는 정치 관여도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공영방송 KBS 뉴스와 MBC 뉴스를 신뢰한 텔레비전 시청자들은 저항적 행위 의도를 적게 보인 반면에 SBS 뉴스와 JTBC 뉴스를 신뢰한 사람들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이슈들에 대해 높은 저항적 의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참여하거나 성명서에 서명하고 더 나아가 탄핵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JTBC 뉴스를 신뢰한 시청자들의 저항적 행위 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뉴스 시청자의 뉴스 신뢰도가 정치 관여도 및 저항적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과 (회귀분석)

		종속변인	
		정치 관여도	저항적 행위 의도
독립변인	KBS	-.20***	-.14**
	MBC	-.12*	-.15**
	SBS	.09*	.09*
	TV조선	-.03	.001
	JTBC	.21***	.30***
	채널A	.007	-.09
	MBN	.000	-.02
	YTN	.03	.01
	연합뉴스	-.02	.03
	F	16.30***	23.67***
	R <sup>2</sup>	.13	.17

\* p < .05, \*\* p < .01, \*\*\* p < .001  
 주) 셀 안의 숫자는 베타값(β)을 의미함.

## V. 결론 및 제언

한 나라 정치의 급격한 변화는 모든 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 혐오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부정과 부패 관련 정치 이슈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에서 무기력하게 대처

할 것이란 예단을 하게 된다. 특히, 미성년층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의 경우, 아예 정치에 대해 무지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는 연령대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은 수능에 집중하고 학교와 학원의 터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숙된 사람들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청소년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정치 의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대별로 정치 관여도에 대해 대학생, 장년층,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모두 높은 수준의 관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저항적 행위 의도의 경우, 대학생 다음으로 청소년이 유사한 집단을 형성했고, 물론 장년층도 높은 수준의 저항적 행위 의도를 보였지만 젊은 세대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다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의 심각성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꾼 것인지, 원래 젊은 세대들도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만 볼 때, 최소한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수준의 정치 사건에서는 통념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보는 젊은 세대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점이다.

둘째, 텔레비전 시청자의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는 동기간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냈다. 지상파 방송,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들(KBS와 MBC)의 경우, 정치 관여도와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즉, 두 언론사 뉴스를 신뢰할수록 정치 사안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정보도와 진정성을 생명으로 가져야 할 공영방송이 국가의 정치 공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또한 두 언론사 뉴스를 신뢰할수록 부정한 정치인과 잘못된 국가관행에 대한 국민의 저항적 행위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현명한 민주 시민을 육성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업 민영 지상파 방송인 SBS와 종편 채널 중 JTBC의 경우, 이들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박근혜 대통



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가 높았다는 것은 위기의 정치 상황에서 두 방송사 뉴스는 나름대로 환경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JTBC의 경우, 회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타 언론사 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이 점에 대해 후속 연구들은 JTBC가 왜 타 언론사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다[18-20]. 우선, JTBC가 세월호 사건이나 철도노조 파업 등 사회 이슈에 있어서 정부보다는 유가족이나 노동자측 입장을 많이 반영했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 관련 보도에서도 광고 중단이나 축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비판적 보도 태도를 보여 저널리즘의 가치를 잘 구현하는 방송사로 포지셔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정국에서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실제 대통령 수감이라는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뉴스 수용자들은 신뢰도 높은 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뉴스 소비 전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둘째, TV조선을 비롯한 모든 종편채널이 보수 시장에 집중한 반면, JTBC는 진보 시장으로의 차별화를 통하여 국민적 공신력과 높은 시청률을 얻었다. 이처럼 JTBC는 시장차별화에 성공하여 미디어 공론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다.

언급된 후속 연구들을 볼 때, JTBC는 저널리즘적 전문성과 진실성을 모두 구비한 신뢰도 높은 언론사로 인식되었고, JTBC의 보도는 뉴스 소비자의 정치관여나 불의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대한 저항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개인의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연령과 뉴스 신뢰도 이외에도 교육수준, 경제수준, 성별, 거주 지역 등 다양하다. 연구 설계 상, 이 모든 잠재변수들을 채택하지 않아, 보다 더 풍성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이미 연구결과에도 언급했지만 통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연령대 집단의 정치 관여도나 저항적 행위의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거의 비슷하다. 이는 각 집단 내 표본들 간에 동질성이 매우 높아서 작은 차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는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차후 연구는 개인의 정치 관여도와 저항적 행위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변수를 발굴하여 이들의 영향력 검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5547](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5547).
- [2] 권혁남, “2012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 정치 냉소주의, 투표 참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1권, pp.28-51, 2012.
- [3] M. J. Robinson, “Public Affairs Televis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Malaise: The Case of The Selling of the Pentag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0, No.2, pp.409-432, 1976.
- [4] L. Bowen, K. Stamm, and F. Clark, “Television Reliance and Political Malaise: A Contingency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44, 1-1, 2000.
- [5] M. Strama, “Overcoming Cynicism: Youth Participation and Electoral Politics,” *National Civic Review*, Vol.87, No.1, pp.71-77, 1998.
- [6] P. Norris, *A Virtuous Cir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7] K. G. Wilkins, “The role of media in public disengagement from political lif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Vol.44, pp.569-580, 2000.
- [8] 이재현, “정치에 무관심한 한국 청년세대-정치 왕따 벗어나기, 청년세대의 도발,” *충북 Issue & Trend*, Vol.29, pp.31-34, 2017.

[9] 유대진, “정치효능, 정치심리, 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2호, pp.243-267, 2010.

[10] 조성동, 나은경, “매체의 이용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심리 및 사회자본 변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한국방송학보, 제28권, 제1호, pp.242-286, 2011.

[11] 임성호, 송경재, “네트워크 사회의 세대와 정치참여: ICT활용능력과 세대구분을 중심으로,” 세계지역논총, 제36권, 제1호, pp.203-228, 2018.

[12] 송종길, 박상호, “뉴스미디어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과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2호, pp.126-163, 2005.

[13] 정일권, SNS를 통한 정치참여, 한국언론학회 (편), 정치적 소통과 눈, 서울: 나남, pp.107-132, 2012.

[14] C. Z. Hovland and W. Weiss,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15, pp.635-650, 1951.

[15] 김여라, “텔레비전 시청자의 채널브랜드 자산평가가 뉴스신뢰도, 선호도 및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6호, pp.87-125, 2009.

[16] 송종길, 박상호,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3호, pp.417-442, 2009.

[17] 우형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이 시청자의 성형수술 행위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획행동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4호, pp.480-513, 2008.

[18] 정용준, “JTBC와 미디어 공론장, 가능성과 한계 모색,”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4호, pp.205-234, 2017.

[19] 김병진, 이상은, 양종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MBC와 JTBC의 저녁종합

합뉴스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554-566, 2017.

[20] 손용석, JTBC 최순실 태블릿PC보도 사례 연구-현장 취재기자의 분석을 중심으로-, KAIST 석사학위논문, 2017.

저 자 소 개

우 형 진(Hyung Jin Woo)

정희원



- 1995년 2월 : 중앙대 영어학과(문학사)
  - 1997년 8월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정치학 석사)
  - 1999년 5월 : 미국 조지아대(저널리즘 석사)
  - 2003년 5월 : 미국 조지아대(매스 커뮤니케이션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 정책, 미디어 효과,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